



07차시 다문화 교수·학습의 기초

1. 다문화 교수·학습의 의미

1) 교수·학습의 의미

교수(teaching) + 학습(learning) = 수업

수업은 교수·학습이라고도 함.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교사·강사·교수(교수자)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 수업은 특정 교육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육내용을 매개로 하여 상호작용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함.

교수·학습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생이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학생중심수업이라고 함. 반면, 교수자가 학생에게 주로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이는 등 교수자의 활동이 중심이 된다면, 교수중심수업이라고 함.

교수·학습의 경우 학습자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학습자가 초보자인 경우,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는 설명과 시범을 통해 교수의 양을 많이 함. 반면, 학습자가 숙련되어 있는 경우, 교수자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비판적이고 생산적인 학습경험을 하도록 유도해야 함. 교수중심수업과 학습중심수업 중 어느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하나의 수업을 나타내는 현상의 표현일 뿐임.

2) 교수·학습의 요소 및 형식

수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4대 요소로 교수자, 학습자, 교재, 교실환경이 있음.

교수자는 수업을 경영하고, 수업 안에서 학습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지시하고, 학습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함. 교수자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학급을 운영하고, 수업을 함에 따라서 분위기가 결정됨. 또한 교수자는 수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경험이 풍부해야 함.

학습자는 수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배울 학습자가 있기에 가능하기 때문임.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가 무엇을 배워야 하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며, 그에 따라 수업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임.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함.

교재는 교구를 포함한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물질적 수단임. 교재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짐(읽기, 시청각, 학습지, 실물). 첫째, 읽기 형태에는 교과서, 참고서, 신문 등이 있음. 읽기 형태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함. 둘째, 시청각 형태에는 그림, 동영상, 그래프 등이 있음. 시청각 형태는 정의적 측면을 강조함. 셋째, 학습지는 주로 교사가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수업을 안내하거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연습할 때 사용함. 넷째, 실물은 모형물을 말하며,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데 사용됨.

교실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음. 교실의 규모, 책상 배치 등이 학습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교실의 심리적 환경이 방임적, 권위적, 민주적이냐에 따라 학습활동이 영향을 받게 됨.

3) 교수·학습의 형식

설명 ► 시범 ► 체험

이 세상 모든 수업은 설명, 시범, 체험으로 진행됨. 교수자는 수업목표 도달을 위해서 우선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주고, 연습과 점검을 통해서 학습자가 완전히 학습했는지 확인하면서 수업을 마치게 됨. 수업을 설명, 시범, 체험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학습자가 이러한 형식의 학습을 선호하기 때문임.

교수자는 항상 설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시범을 보여줄 것인지, 또 어떻게 학습자를 연습시키고, 점검할 것인지 판단해야 함.

그리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자의 훌륭한 설명과 시범임. 왜냐하면 훌륭한 설명과 시범이 없이는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임.

4) 학습이론

학습이론은 학습자의 본성을 보는 시각과 학습활동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름. 학습자의

본성을 보는 시각은 성선설, 성악설, 중립설 등이 있으며, 학습활동을 보는 시각은 수동적, 적극적, 상호작용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학습자의 본성과 학습활동의 본성에 따라 적용해야 할 학습이론은 달라짐. 수많은 학습이론이 있지만, 현재까지 설명을 가지고 적용되고 있는 것은 정신도야 이론, 자연주의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지주의 이론 등 네 가지 임. 첫째, 정신도야 이론의 경우, 학습자의 본성이 악하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존재이므로 훈련과 수양으로 학습을 강제해야 함. 둘째, 자연주의 이론의 경우, 학습자의 본성이 선하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존재이므로 자연스럽게 학습을 격려해야 함. 셋째, 행동주의 이론의 경우, 본성이 중립이고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존재이므로 상과 벌을 통해 학습을 유도해야 함. 넷째, 인지주의 이론의 경우, 학습자의 본성이 중립이고, 상호작용으로 학습하는 존재이므로 협동학습이나 토의·토론 등 상호작용을 활용한 학습을 적용해야 함.

2. 다문화 교수·학습의 종류

수업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음. 규모, 소재, 학습목표구조,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방향, 수업 역사, 학습자의 학습활동 등 여섯 가지 기준에 따라 수업은 다양하게 분류됨.

첫째, 규모의 경우, 학습자 수에 따라 소집단 수업과 대집단 수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둘째, 소재의 경우, 주된 수업 교재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불릴 수 있음. 예를 들어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배운다고 할 때, 신문의 기사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신문활용수업이 되는 것임. 또 다양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배운다고 할 때, 연극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문화예술활용수업이 되는 것임.

셋째, 수업목표달성을 위해 학습자가 맺는 관계에 따라, 경쟁학습구조, 개별학습구조, 협동학습구조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경쟁학습구조의 경우, 학습자 간에 서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학습자 간 부정적인 상호의존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개별학습구조의 경우, 학습자 혼자서 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자 간 아무런 상호의존이 일어나지 않음. 협동학습구조의 경우, 모둠에서 서로 잘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호의존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음.

넷째,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방향에 따라 설명식 수업, 개별화 수업, 문답식 수업, 토의·토론식 수업, 팀티칭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설명식 수업의 경우 교수자가 학습자를 향해 있고, 개별화 수업의 경우, 학습자가 교수자를 향해 있고, 문답식 수업의 경우, 교수자와 학습자는 상호작용함. 토의·토론식 수업은 학습자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팀티칭은 교수자 간 상호작용으로 진행됨.

다섯째, 수업 역사에 따라 문답식 수업, 설명식 수업, 개별화 수업, 탐구 수업, 문제해결 수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여섯째,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따라, 정보처리 수업 모형, 인간발달 수업 모형, 행동수정 수업 모형, 사회적 상호작용 모형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3. 다문화 교수·학습의 전개

일반적인 수업은 도입-전개-정리의 절차로 전개됨. 앞서 언급했던 수업이 설명, 시범, 체험으로 진행된다고 말 한 것은 주로 전개 절차에서 많이 활용됨. 전개 단계가 수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업 시간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업의 핵심이라고도 말 할 수 있음. 그렇다고 도입 단계와 정리 단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도입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불러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임. 또한 정리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학습목표에 제대로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수업을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임.

1) 도입

도입 단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학습 동기, 전시학습 상기, 목표 진술 등의 세 가지 요소임.

첫째, 학습 동기는 배우고자 하는 방향(DIRECTION)과 힘(ENERGY)을 말함. 학습 동기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구분됨. 예를 들어 학습자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면 내적 동기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부모님이나 교수자의 어떤 얘기로 공부하게 되거나,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었다면, 외적 동기라고 할 수 있음.

둘째, 전시학습 상기는 학습자가 오늘 배울 내용을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함. 대부분의 지식은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결되며,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연결됨. 즉 교수자가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바로 설명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결시킨다면, 그 학습이 더 쉬워지고 의미 있어 지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생물 시간에 지난 시간에 동물에 대해 배우고, 이번 시간에 식물에 대해 배운다면, 교수자는 “생물에는 동물과 식물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동물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식물에 대해서 배워볼까요?”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학습지식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셋째, 목표진술은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달성하였으면 하는 것임. 교수자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수업목표에는 학습내용, 조건, 학생 행동 등 세 가지 요건만이 포함되어 있음. 수업목표는 학습자를 기준으로 진술되어야 함.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의식하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수업목표는 추상적으로, 목표가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수업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야 함.

2) 전개

전개 단계는 본격적인 수업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음. 전개 단계는 설명, 시범, 체험의 절차로 진행됨.

설명에는 교수자의 오늘 배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임. 그러나 학습자마다 선호하는 학습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에 의하면 보는 것을 선호하는 학습자가 29%, 설명 듣는 것을 선호하는 학습자가 34%, 질적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습자가 37%임. 즉 교수자가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오랜 시간 설명한다면, 보는 것을 선호하는 학습자와 직접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습자는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음. 따라서 교수자는 하나의 수업 안에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함. 설명은 교수자가 할 수도 있고, 학습자를 시킬 수도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명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임.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설명해줘야, 교수자가 시범을 보이고, 학습자가 직접 체험을 할 때도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

시범에는 교수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됨. 학년이 낮을수록 많은 시범을 보여줘야 함. 학습자의 이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교수자는 학습자가 교수자의 시범을 제대로 모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모델을 보여줘야 함. 또한 시범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보여줘야 함. 학습자가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임.

체험은 학습자가 제대로 수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교수자는 학습자가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함.

3) 정리

정리 단계는 평가, 차시 예고 등이 이루어짐. 수업의 마지막에 교수자는 그 날 수업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퀴즈를 통해서 학습자가 수업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평가하기도 함.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무슨 내용을 배울 지에 대해서도 예고를 함. 이는 다음 시간의 전시학습 상기에서 학생들의 인지구조를 정교화 시키고, 학습 동기를 불러 일으키기 위함임. 또한 다음 시간 준비물을 얘기할 수도 있음.